

이변은 없었다...투혼은 있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복싱평의회(WBC) 슈퍼웰터급(69.85kg) 프로복싱 경기에서 코너 맥그리거(아일랜드·오른쪽)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미국)가 펀치를 주고 받고 있다. 메이웨더는 이날 맥그리거를 상대로 10라운드 TKO승을 거두며 로키 마르시아노(49전 49승)를 넘어 복싱 역사상 최초로 50승 무패 기록을 썼다. 하지만 메이웨더는 프로 복싱 데뷔전에 나선 맥그리거에게 10라운드까지 허용하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복서라는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다. /연합뉴스

‘세기의 대결’ WBC 프로복싱 ‘복싱 데뷔’ 맥그리거 49전 전승 메이웨더에 10라운드만에 TKO 패

49전 전승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미국)에게 ‘복싱 초보’ 코너 맥그리거(29·아일랜드)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메이웨더는 27일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벌어진 세계복싱평의회(WBC) 슈퍼웰터급(69.85kg) 프로 복싱 대결에서 맥그리거를 10라운드 TKO승을 거뒀다. 이로써 메이웨더는 로키 마르시아노를 넘어 복싱 역사상 최초로 50승 무패 기록을 썼다. 하지만 메이웨더는 프로 복싱 데뷔전에 나선 맥그리거에게 10라운드까지 허용하며 명성에 손상을 입게 됐다. 이번 ‘슈퍼 매치’는 예상한 대로 메이웨더의 승리로 끝났지만 더 빛난 것은 격투기 최강자 맥그리거의 투혼이었다. 오스카 델라 호야, 리키 해튼, 사울 카벨로 알바레스, 매니 파키아오 등 메이웨더가 지금까지 꺾었던 내로라하는 복서들에 비해 맥그리거는 프로 복싱 경험 자체가 전무했다. 예상과는 달리 맥그리거는 3라운드까지는 대등하게 잘 싸웠다. 맥그리거는 경기 막판까지 투지를 발휘하고, 변칙 공격을 펼쳤지만 10라운드를 버티지 못했다. 메이웨더의 라이트 스트레이트 펀치가 정확하게 맥그리거의 안면에 꽂혔고, 체력이 소진된 맥그리거는 클린치(껴안기)에 급급했다. 주심은 다리가 풀린 맥그리거를 멈춰 세우고 메이웨더의 승리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함께 가자” KIA ‘동행’으로 6연패 탈출



나지완 보름만에 타점·김세현 극적 세이브...3실책 유재신 ‘위로’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 가 아니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지난 23일 챔피언스필드에 가수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가 울려 퍼졌다. 평소 김기태 감독이 좋아하는 이 곡은 캠프 훈련 시간에도 종종 들을 수 있다. 올 시즌에는 조계현 수석 코치의 의견에 따라 가수 사이의 신나는 노래들이 KIA의 훈련곡이 됐지만 이날은 김광석의 ‘일어나’와 함께 ‘혼자가 아닌 나’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한 선곡이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KIA의 연패는 5연패까지 이어졌고, 비로 한 경기 뒤 치른 대전 원정경기에서도 패가 하나 더 붙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은 마산. KIA는 지난 26일 나지완의 투런포와 김세현의 극적인 세이브로 어렵게 8-7승을 거두며 마침내 연패에서 탈출했다. 승리를 앞두고 유격수 자리에서 3개의 실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진담은 흘렸지만 ‘혼자

가 아닌 나, 우리’라는 마음으로 KIA 선수들은 승리의 귀중한 순간을 누렸다. 연패 탈출의 주인공은 본의 아니게 ‘이적생’ 유재신이 됐다. 8-3으로 앞서 9회 말, 7회부터 마운드에 올랐던 박진태가 나성범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연패 탈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호준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8-4. 박진태가 3루수 땅볼로 이날 경기의 26번째 아웃카운트를 책임졌지만 김성욱을 좌중간 안타로 내보냈다. 그리고 지석훈과의 승부에서 방망이가 움직이자 KIA 선수들은 연패 탈출을 예감하고 두 손을 들었다. 유격수 앞으로 향한 평범한 땅볼. 하지만 유재신의 2루 약속으로 경기가 복잡해졌다. 박진태가 다시 한번 유격수 땅볼을 유도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연달아 유재신이 송구 실책을 범하면서 경기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다. 3이닝 세이브에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박진태가 내려가고, 김세현이 마운드에 올랐지만 불넷에 이어 다시 한번 유격수 실책이 기록됐다. 김기태 감독이 1

루수 서동욱과 유재신의 자리를 맞바꿨지만, 갑송 타구가 서동욱 사이로 빠져나간 것이다. 유격수 기용 실패로 점수는 8-7까지 쫓겼고, 2사 1-3루에서 올 시즌 두 차례 끝내기 홈런을 기록한 스크릭스가 타석에 섰다. 숨 막힌 승부는 헛스윙 삼진으로 김세현의 승리로 마무리됐고, 팀은 6연패에서 탈출했다. 기다렸던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던 유재신을 위해 선수단은 ‘괜찮다’며 웃었다. 코칭 스태프도 “이겼으니 됐다”며 격려했다. 간절했던 선수단이 마음으로 부른 ‘혼자가 아닌 나’였다. 이날 투런 포함 3타점을 올렸던 나지완은 “연패 기간 너무 역할을 못해서 미안했다. 어떻게든 주자를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쳤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분위기 좋게 하려고 했고, 코칭스태프로 캠프 연습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주셨다”며 선수들이 함께한 승리를 이야기했다. 공 하나하나에 간절하게 움직이던 이범호도 “요즘 타격이 안 좋기도 하고 수비에

서라도 역할을 하나씩 집중했다. 초반에 실책이 나오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집중해서 했다. 나뿐만 아니라 선빈이, 지홍이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며 “타석에서도 그렇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해보려고 했고, 다른 선수들도 다 같은 마음이다. 한 명이 잘해서 이길 수는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를 해야 한다”고 함께 하는 야구를 말했다. 어떤 세이브 상황보다 힘들었던 무대에 올랐던 김세현의 마음도 ‘아수진의 부담을 함께 들자’였다. 김세현은 “아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무조건 삼진을 잡겠다고 생각했다. 앞서 주자를 들여보내서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났었다. 내 스타일대로 승부를 하려고 했다. 어떤 투수에게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정말 어려운 경기였지만 연패를 끊어서 좋다”고 웃었다. 1승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 KIA가 ‘혼자가 아닌 나’가 되어 우승이라는 목표로 향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비를 뚫고 27일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광주시협회장기(회장 유석우) 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 예선리그 장덕중과 윤리중 경기에서 장덕중 최민혁이 슈트를 하고 있다. 이번대회는 여자초등부 3개팀, 남초등부 7개팀, 여자중등부 9개팀, 남중등부 11개팀이 26일과 27일 예선리그를 거쳐 오는 9월 23일 결선토너먼트를 벌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범호 “형우가 해주겠지”



▲치고 들어와서 알았어요 = 묵묵하게 중심타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최형우다. 최형우는 지난 26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이날 경기의 두 번째 안타이자 시즌 150번째 안타를 기록했다. 이 안타로 최형우는 5년 연속 150안타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LG 박용택에 이어 두 번째 나온 특별한 기록이지만 최형우는 내 할 일을 했

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최형우는 “150안타 기록인지 몰랐다. 두 번째 기록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 안타 치고 덕아웃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말해주더라”며 특별한 기록에 대한 특별하지 않은 소감을 밝혔다. ▲형우 형 있잖아요 = 27일 NC와의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사람들의 눈길이 김선빈의 발목에 쏠렸다. 전날 2루 슬라이딩 도중 허벅지 통증으로 중도에 교체됐던 김주찬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김선빈까지 뛰지 못하면 공격에 차질이 빚

어질 수 있는 비상 상황이었다. 전날 수비 도중 발목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던 만큼 김선빈을 놓고 관계자들의 애가 됐다. 다행히 김선빈은 이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대신 타석 부담이 많은 1번이 아닌 9번으로 배치됐다. 사람들의 애를 태운 김선빈이지만 “아프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 김선빈은 “(최)형우 형 있잖아요”라며 해맑게 웃었다. ▲형우가 해주겠지 = 27일 전날 연패 탈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이범호. “앞에서 해주면 부담이 줄어드니까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다들 베테랑들이라서 풀어나갈 능력들이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고 말하던 이범호가 갑자기 “(최)형우가 해주겠지”라며 큰소리를 쳤

다. 마침 최형우가 이범호 옆을 지나가고 있던 상황. 이범호는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해하더라”는 농담을 하며 웃었다. ▲나도 투수하고 싶다 = 후배 남재현이 부러웠던 한승택이다. 포수는 할 일 많고, 챙길 것 많은 자리다. 훈련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장비 다 착용하고 수비 훈련을 해야 하고, 타격 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선발 투수와 미리 호흡도 맞춰봐야 한다. 27일 한승택은 “자율 훈련이라서 받도 다 먹었다”는 후배 남재현의 말에 “나도 투수하고 싶다”며 부러운 눈길을 보냈다. 이어 한승택은 “나도 아마 시절 투수했었는데 그런데대로 잘 했다”고 옛 시절을 떠올렸다. /마산=김여울기자 wool@